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빅그린(Big Green)은 역사가 50년이 넘는, 미국에서 이름이 있는 환경운동단체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벌여 자산이 30억 달러에 이르고 회원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 시민단체는 '양립 가능한 개발'을 내세웠다. 막무가내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는 온건한 태도를 줄곧 지켰다. 그래서 빅그린은 어느 시민운동 단체보다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들어왔다.

빅그린, 비리의 복마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그린은 지난 2003년 '워싱턴 포스트'의 일련의 탐사보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 신문사 기자 조 스티븐스(Joe Stephens)는 동료기자 데이빗 오타웨이 등과 함께 빅그린을 취재해 이 단체가 그야말로 비리의 복마전임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빅그린은 텍사스만 연안에서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벌인다고 수많은 시추공을 파고 그렇잖아도 별종 위기에 놓인 새가 떼죽

음을 당하게 했고, 더구나 다른 업자의 천연가스까지 끌어다 팔아 결국 1천만 달러의 혐의금을 물려냈다. 버지니아주 동해안에 숙박업소, 공장 등을 지으려다 실패해 2천4백만 달러를

시민단체, 보도의 성역일수 없다

손해를 보기도 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치 좋은 곳에 땅을 사들였다가, 방침을 바꾸어 다시 개인에게 불하하면서 빅그린 간부들한테도 혐의대로 넘겨, 이들이 그 땅에 호화주택을 짓기도 했다.

빅그린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예 참뚱뚱했다. 기업들은 빅그린에 기부금을 내거나 이사회에 자사 직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빅그린과 특수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스티븐스가 밝혀낸 비리는 이밖에도 많다.

빅그린 관계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당신들의 부당한 취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른 신문이 아닌 '워싱턴 포스트'에 전면광고를 내 항변하는가 하면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도 했다.

그러나 2년 동안 치밀하게 증빙자료를 확보한 스티븐스 기자에게 빅그린도 마침내 두 손을 들었다.

빅그린은 자체적으로 내부감찰을 벌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상원 재정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국제청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빅그린의

다고 평가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 간에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게 함으로써 시민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이다.

상호비판 일상화해야

최근 우리나라의 어느 메이저 신문은 그동안 언론민주화운동을 펴온 한 시민단체의 간부 교수가 논문을 표절할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마침 그 교수가 KBS의 이사로 임명된 직후이기엔 하지만 사회통념에 따르면 신문이 좀 심한 것 아니냐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평교수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는 당사자의 항변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더구나 언론학계에서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세려면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란다.

그러나 이런 보도를 계기로 학계나 시민단체가 도덕성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건전한 상호비판도 일상화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민사회도 한 뼘 더 훌쩍 자랄 것이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치력으로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막아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국이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특히 운영철 현 소장의 임기가 14일 끝나기 때문에 자칫 초유의 헌법 최고기관의 수장 공백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1차적 책임은 지명 절차에 있어 위법성 시비를 제공한 청와대에 있다. 헌법은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관행을 들어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임명 절차를 취했기 때문이다.

여당도 20일 전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나라당 또한 청문회가 진행된 사흘 동안 원칙도 기준도 없이 갈갈질

할 만큼 전 내정자의 지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청문회 구성과 청문 심사에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전효숙 사태'는 청와대와 여야의 무지와 무원칙, 무능력 등 3무(無)가 빚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강행처리를 결사 저지를 주장하며 마치 마무리보고 철길을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조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야가 이번 경우에 한해 청문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분회의에서 동의안 표결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다음 드러난 절차상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손질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여야는 '전효숙 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민생 정치에 전념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을 명심하기 바란다.

화순군수 사퇴...불·탈법선거 근절 계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현종 화순군수가 11일 전직 사의를 표명했다.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직한 것은 광주·전남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전 군수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전 군수의 중도사퇴를 전 군수의 심정은 착잡하다.

전 군수가 취임 한달여만에 구속된 데 이어 시작함으로써 군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또 역대 민선 군수 4명 가운데 임호경, 임호경, 전형준 군수 등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화순의 미래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화순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불명예는 심할 것이다.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고 산적한 현안도 차질을 빚게 됐다. 화순군 공무원들 사이에선 "또 선거를 해야 하느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현상이 비단 화순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 예견된다.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곳의 당선자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시장·군수 직을 박탈당하는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군수의 중도사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선거가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진 데 있다.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잘못된 선거풍토는 불·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사법당국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단하길 바란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은 공정한 만큼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 행정공백이 장기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순군민들도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당신 눈을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울고 싶지만 울 수 없어요. 당신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지난 4월 프로축구 포항의 이동국이 무릎부상으로 독일월드컵행이 좌절된 직후 그의 부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딸과 눈물로 채워온 4년 세월을 기다렸으나 하루아침에 희망을 놓쳐버린 뒤 이동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을 수

표 선발을 '여지 짐집'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12월에 열리는 2006 도하야 시안게임 출전 선수발표 전부터 삼성의 권오준, 배영수가 부상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고 발표 후에도 최근 두산의 김동주, 홍성흔이 차출을 거부한 데 이어 한화외의 구대성도 못 뛰겠다며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물론 몸값 상승 등 개인적 의도를 배제한 채 축구선수들의 애국심이 더 높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야구선수들의 거부는 분명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병역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별 소득이 없는 국가대표 출전을 의면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프로와 애국심



김제박 대표팀 감독은 병역해택을 받은 선수들은 몇 년간 의무적으로 뛰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도 프로선수가 아닌 국가가 부르며 주저하지 않고 나설 때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가 깊어갈 것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영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의 황혼의 멋진 표현이 생각난다.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후! 황금빛 노년! "구체적으로 무엇이 즐겁고 행복한 노년일까?"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개인차에 따른 행복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황혼의 삶을 위한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있다. 추구하려는 행복이란 어떤 것이며 행복한 노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는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소에 무엇을 하고 지냈으며 무엇을 소망해 왔는가를 따져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노후는 '다 끝난 인생'이란 연극의 무대에서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나머지 시간을 기다리는 인생이다 그 대가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창한 의미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시작하려는 용기와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 체면에 얽매이지 않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오랜 인생을 이끌어 오면서 아주 어

품위 있는 황혼의 주인공

자식들과 집안에서 평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닌 은퇴 후에도 사회 참여와 주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모습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은퇴는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노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즐겁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더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창조적이고 심취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할 때! 골프나 치면서 지내는 일상을 즐기는 것과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는 취미에 심취하는 것은 성취감과 즐거움의 강도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찾고 뜻있는 일에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치관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품위 있는 황혼을 지켜주는 또 다른 삶이 아닐까?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레크레이션팀 사무국장>

렵게 얻은 값진 노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부족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없는 것에 초월하여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몸이 건강하다면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든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60년을 혹은 70년을 살아도 섭렵하지 못했던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것이다. 책임의 세대라는 짐을 벗고 훌훌벗고 부단 없는 해방된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다. 얻을 것이 없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로 여유있는 노년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품위 있는 황혼을 지켜주는 또 다른 삶이 아닐까?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레크레이션팀 사무국장>

제품 판촉위해 다른회사 비방해서야

집에서 사용중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대신 자기 회사로 바꿔 새로 가입하려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걸려오는데 바쁘게 일할 때도 걸려와 짜증이 나기도 한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인터넷 연결도 잘 안 되고 서비스도 좋지 않는데 왜 계속 사용하느냐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것을 알고 있는지 불쾌하기까지 하다. 이미 장기 계약을 해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정민·광주시 북구 생용동

몇분간 말씨름하다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전화를 끊어도, 또다른 사람에게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한다. 다른 회사 고객 정보를 어떻게 빼냈는지 모르겠지만 경쟁회사를 비방하며 영업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자기 회사의 장점을 소개하면 그런 얘기가. 타 회사를 비방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의 고객을 미리 끊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정민·광주시 북구 생용동



동물들의 탁아소



보육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숙제다. 생활방식이 핵가족화로 바뀌면서 기존 부모나 형제간에 맡았던 공동육아 형태는 사라졌다. 현재는 타인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동물들도 그럴까? 동물들도 결국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없이 새끼를 품에 안고 돌 볼 수는 없다. 새끼들도 사회성과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힘과 기술을 연마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 육아다. 무플론(mouflon·야생산양)의 경우 3월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김없이 모두 출산한다. 한 우리에 있는 여러 무플론들이 한꺼번에 새끼를 낳게 되는 것. 이런 동물들을 '계절별신동물'이라 부

른다. 출산하면 한 달 정도 엄마는 새끼를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 키운다.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생긴다. 새끼들의 시야가 넓어져 어미보다 주변의 동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면 무플론 우리는 활기를 띤다. 올해 태어난 개구쟁이들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서로 뒹굴면서 물거나 부딪히는 과정을 거치며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기술을 공동 연마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농촌 인구 유입정책 시급하다

내가 태어난 보성 고향 마을은 현재 50여 가구가 약간 남는데, 농민들 평균연령이 70세 가까이 된다. 버스도 하루에 네 번 밖에 오지 않는 오지로, 고향 주민들 모두 나이 들어 죽고 나면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을 한다. 앞으로 10년 정도다. 우리 고향 뿐이겠는가.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 차라리 조

순족 동포와 동남아 청년들을 받아들여 농업에 입학시키고, 또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농업전문대학에 입학시켜 영농후계자로 육성시키고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도록 하면 안될까. 우리 땅을 지켜갈 인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장기적인 농촌 인구 유입정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